

민주 전남지사 경선후보 3인에 듣는 포부·정책·공약

“권역별 맞춤형 지역개발 추진
분권시대 동부권에 제2부지사”

김영록

◇공통질문
-전남발전 핵심 정책 3개만 꼽아달라.

전남발전 핵심 정책은 ▲10만 인제 키우기 프로젝트 ▲첨단 농산업 유치 ▲권역별 맞춤형 지역개발이다. '10만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육성해 제2, 제3의 젊은 김대중을 배출하겠다.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 제2행정부지사를 신설해 동부권에 상근토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군공항 이전 어디로?

이전 협의는 전남과 광주시 뿐 아니라 국방부 등 3자 협의가 필요하다. 민간공항 이전이야 무안공항 조성 당시부터 예정된 사항으로 당연하다. 다만, 군사공항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공항 이전 자체는 광주와 전남 상생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군사공항 이전은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기관과 민관이 참여하는 '광주공항 이전,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흑산공항 건설 찬반 논란에 대해

해상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보존한다는 대책 마련은 당연한 일이지만, 흑산공항 건설 또한 국가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주민 생활편의 증진, 해양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기 건설될 필요가 있다.

-철강·화학·조선 등 전남 주력산업 위기인데, 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에 이어 3단계 지역 대책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남 목포와 여수, 광양을 산업·교육위기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고용위기 업체에 대한 중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경력 ▲완도 출생(63세) ▲광주제일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문재인정부 농식품부장관 ▲18·19대 국회의원 ▲전남도 행정부지사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광주 군공항 이전 해당 지역 주민 의견 가장 중요

목포·여수·광양, 정부 산업위기지역에 포함시킬 것

요즘 악수 대신 포옹...부족한 스킨십 고치려고 노력

-저출산 극복 획기적 대책 있나?

저출산의 원인인 출산·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해결하는 것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의 컨트론타워와 광역단위 전담부서 간 긴밀한 협조 및 공조 네트워크 강화 필요하다. 전남의 출산 증대를 위해 저출산정책 전담부서 신설,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출산용품(마더박스)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다른 후보와 차별점과 후보만의 강점은?

전남도는 이낙연 총리가 비유럽 1년 가까운 도지사 공백으로 새로 선출되는 도지사는 곧바로 도정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두 번의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부장관, 지금 전남이 필요한 도지사를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은 김영록 뿐이라고 생각한다. 서릿발 같은 국회 청문회에서 비리나 의혹, 흠결 하나 제기되지 않은 어떤 후보보다 깨끗한 청렴성이 강점이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다. '폭격 경선'할 의향 없나?

건전한 비판과 팩트 등을 근거로 한 정책경선, 공정경선을 거듭 제안한다. 최근 경선이 다가오면서 SNS 등을 통해 흑색선전에 가짜뉴스까지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선거사무소 내에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해 각종 불·탈법과 네티즌 공세를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등 노력하고 있다.

◇개별질문

-소통·화합·스킨십이 떨어진다 지적이 있는데?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오랜 공직생활로 '딱딱하다', '공무원 스타일이다'는 말도 있다. 고시 합격이후 28년간 도민, 국민을 모시고 공직생활을 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요즘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변했다. 예컨대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포옹도 많이 하고, 리액션도 훨씬 크게 한다. 더욱 노력하겠다.

-AI확산, 구제역 등 농정이 위기인데, 이를 놓아두고 출마했다는 비판이 있다.

농림부장관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20년 전으로 곤두박질친 쌀값을 회복한 것이다. 80kg 기준 쌀값이 작년 이맘때 12만9000원에서 지금은 17만원이 넘는다. 또 쌀출제 계란 파동의 대책을 마련하고, AI도 조기에 차단시켰다. AI는 전년 동기 발생건수가 361건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20건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축산물 상한가격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대통령 후광에 너무 기대는 것 아닌가. 대통령 이름 자체를 생각은?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고,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저를 같은 급으로 보는 것은 섭섭하다. 많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출신들이 문재인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장관 출신 후보자는 혼자다.

-신정훈 후보가 '김 후보는 문재인 지지수'라며 정체성 의혹을 제기했는데?

문 대통령을 함께 만들었던 '동지로서 많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표 당시 수석대변인으로서 '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 당선 이후에는 초대 농식품부장관으로 일해온 대표적인 '문재인 사람'이다. 그동안 근거없는 정치공세에는 무대응해왔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 공세에 대해 더는 참지 않겠다.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임기내 한전공대 개교식 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 30% 실현”

신정훈

◇공통질문
-전남발전 핵심 정책 3개만 꼽아달라.

첫째, 2000만 신해양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주도 성장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사동발달의 철도교량망을 구축하고, 광양만권과 여수엑스포장을 연결하는 신산업 전략과 남해안을 아우르는 해양 및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둘째, 임기 내 한전공대 설립 및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 30% 실현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대선 때제가 제안한 것으로 캠프 내 여러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들어줘 공약으로 확정됐다. 반드시 임기 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개교식을 가질 것이다. 혁신도시가 주축이 되는 에너지밸리는 전남지역의 에너지 흐름을 고도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 전체 전기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겠다.

셋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청년농업인 수당 신설 등 전남형 농정개혁이다.

-민간 군공항 이전 어디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민간공항이 통합한다면 군공항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광주공항의 이전 문제가 광주시가 적절한 보상책 등을 제시한다면 이를 토대로 전남도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흑산공항 건설 찬반 논란에 대해

흑산도는 오직 여객선만 하루에 4회 오가며, 가장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도 2시간이나 소요된다. 그마저도 결항률이 11~13%나 된다. 주민 편익입장에서만 봐도 흑산도 하늘 길은 절대 필요하다.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면 해양자원과 철새 보호, 육상 및 해양 동식물 보호 등의 문제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본다.



주요경력 ▲나주 출생(53세) ▲광주인성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나주시장 ▲5·6대 전남도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청년농업인 수당 신설

광주·무안공항 통합엔 군공항도 무안 이전 타당

강성 이미지는 기우...시대적 상황이 만든 선입견

-철강 화학 조선 등 전남 주력산업 위기인데, 대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경쟁력 약화와 중국과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과 고도화는 물론 산업의 재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을 전남이 주도해 내고 문화관광 등 미래 신산업 육성도 절실하다. 특히 전남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인 산업생태계를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다수 중소기업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 획기적 대책 있나?

저출산 극복은 일자리, 주거, 보육, 복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다. 전남을 4차산업을 선도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겠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일선 시군에서 발굴 시행되고 있는 각 복지행정을 전폭적으로 수용, 청년 창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과 후보만의 강점은?

다른 두 후보와는 달리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통해 정치철학을 몸으로 체득해왔다. 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밀착형 민생정책을 만들었고, 실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전공대 설립을 입안하는 등 위기의 전남을 구할 잠정적이고 혁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다. '폭격 경선'할 의향 없나?

후보간 공방이 아니다. 김영록 후보가 '허위자료'를 언론자료로 배포한 게 잘못이고, 이를 문자 등으로 대량 살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공정 경선의 명백한 반칙행위다.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네티즌'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더욱 문제다. 저는 처음부터 전남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민생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정책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개별 질문

-AI확산, 구제역 등 농정이 위기인데, 이를 놓아두고 출마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농어업비서관 자리를 8개월 만에 내려놓았다.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전남도는 여전히 그저 무난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고향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저다. 전남의 위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든 전남의 10대 공약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전남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역사적 소명이기도 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학생운동, 농민운동, 풀뿌리정치를 하면서 형성된 이미지일 수 있겠다. 시대적 상황이 만든 선입견이다. 시장과 국회의원,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했다. 이 자리는 소통과 화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기우일 뿐이다.

-지지가반인 나주와 농민회에서 지지가 엇갈린다는데, 타계 대책은?

시장과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다. 개인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호불호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세 폐지를 성공으로 이끈 농민운동가 출신으로서 그때의 초심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다. 농업정책을 두고는 언제나 대화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농업공약 실천 협약도 했다.

“벤처·개미창업 생태계 구축
‘워라벨’ 일자리 창출하겠다”

장만재

◇공통질문
-전남발전 핵심정책 3개만 꼽아 달라.

첫째, 사람을 세우는 전남을 만들겠다. 청년이 웃는 워라벨 일자리를 창출하고 ICT와 연계한 온라인 청년벤처·개미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전남을 건설하겠다. 매력적인 자연과 다이나믹 레저가 어우러진 명품관광,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 농어촌을 건설하겠다. 셋째, 미래를 약속하는 전남을 일구겠다. 신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지능정보기술과 연계해 기존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모색할 것이다.

-민간·군 공항 이전 어디로?

광주시에 논의를 통해 슬기롭게 결론을 내리고, 후보지를 공모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는 광주공항 이전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전남과 나누어 한다. 아울러 광주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흑산공항 건설 찬반논란에 대해?

다도해의 매력적인 자연과 다이나믹 레저가 어우러진 명품관광을 육성하겠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다만, 전체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공항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철강·화학·조선 등 전남 주력산업 위기인데, 대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 재도약시키겠다. 철강산업 관련 고급·고기능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화학, 정밀화학 분야로 업종을 재구조화해 생산성을 제고



주요경력 ▲영암 출생(60세) ▲광주제일고, 서울대 화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이학 석사·박사 ▲16·17대 전남도 교육감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순천YMCA 이사

교육과 행정 조화로 자녀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 것

지능정보기술 접목 전남 주력산업 위기 극복

평소 소신·철학 문재인 정부와 맞닿아 민주당 선택

하겠다. 목포권 조선산업의 장점을 활용해 중국과 동남권을 겨냥한 선박 수리·개조산업으로 특화 육성하겠다. 또한, 조선산업을 대체하는 27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을 추진하겠다.

-저출산 극복 획기적 대책 있나?

교육과 행정의 조화로 자녀 키우기 좋은 고장을 구현하겠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도청 내에 청소년교육국을 신설해 전남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커리큘럼을 강화하겠다.

-다른 후보와 차별점은? 후보만의 강점은?

'사람을 세우는 전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평생을 교육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전남을 미래로 이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다. '폭격 경선'할 의향 없나?

이미 경쟁 후보들에게 '원팀경선'을 제안했다. 지금은 경쟁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이며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가 후보가 되든 모두 민주당원이다.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네티즌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어야 한다.

◇개별질문

-굳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체성,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김대중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의 사회 건설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저의 교육철학과 일맥상통한다.

-뒤늦게 임당해 권리당원 표심에 약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밀바다 정서가 저에게 있다. 다만 경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 사용으로 '기술어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도민을 믿고 진정성 있게 다가선다면 결국 제가 승리할 것이다.

-교육행정 전문가로 종합행정의 이해도가 낮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과 행정이 별개일 수 없다.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책들은 행정과 함께 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교육을 일으켜 지역발전의 동력을 되살려냄으로써 전남의 미래 '희망'도 피워낼 수 있는 것이다. 교육만 살려낼 수 있다면 당면한 농촌공동화 문제도,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청소년·청년이 전남을 떠나고 있다. 대책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다. 제가 8년 동안 했던 교육의 성과와 전남도의 행정을 접목하면 전국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갖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는 강소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온라인 청년 개미 창업을 지원하고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청년 개미 창업을 지원해 전남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